



농협사료 대기축 기술정보지

- 사육동향(낙농 및 비육산업)
- 출하(시세)동향
- 유통가격 동향
- 주요 원자재 시황 및 가격동향
- 주요 뉴스 스크랩~!!

농협안심한우

최고의 출하성적에 도전합니다
최고의 번식성적에 도전합니다



고급육

숙성비육
육성비육
마블-부스터
프리미엄카프
어린송아지

우량암소

포유탑
번식임신우
번식육성우
암소마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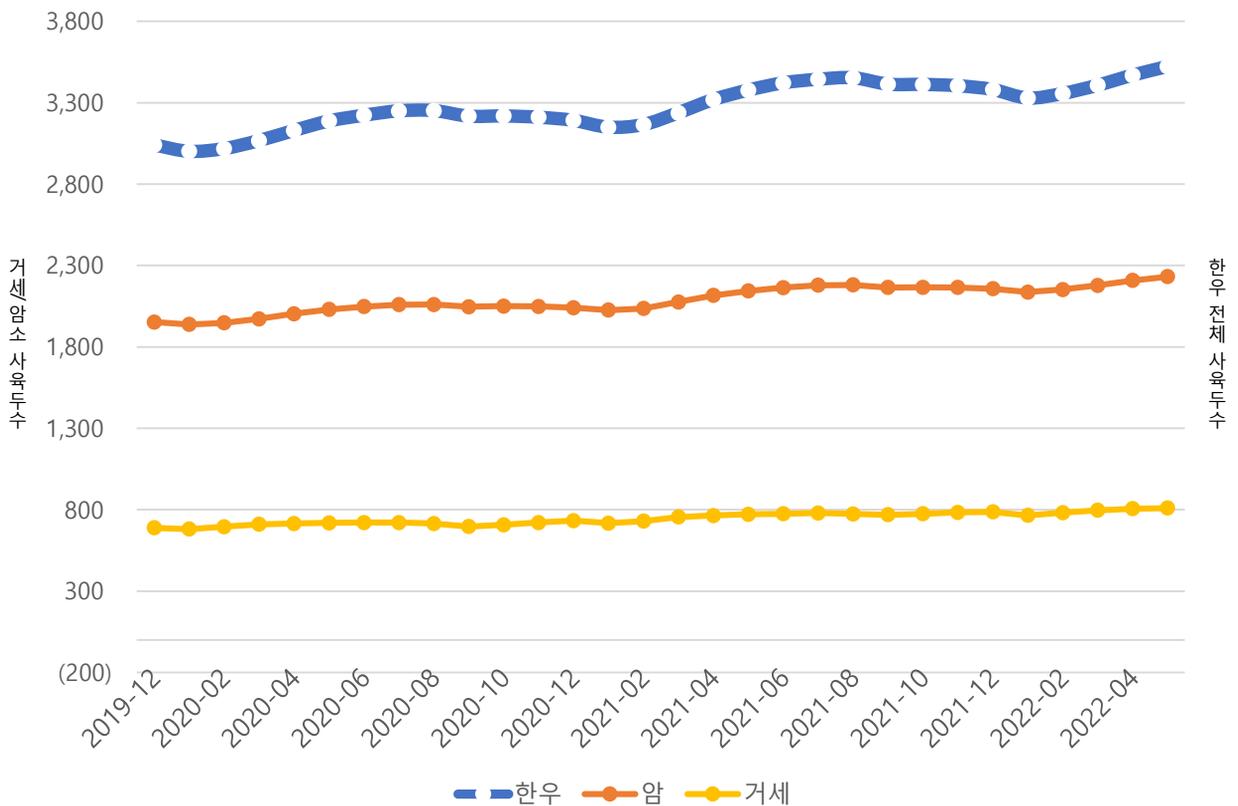
사육동향

2022년 5월 기준

한우 사육두수(암소, 거세)

한우 사육두수 350만 마리

(단위 : 천두)



(출처 : 한우핵심DB)

- 2022년 05월 한우사육두수는 352.2만두로 최근 3개월 평균 대비 3.3% 증가하였고, 최근 6개월 평균대비 3.9% 수준 증가되었습니다.
- 암소의 사육두수는 2,232천두로 최근 3개월 평균대비 2.4% 증가하였고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3.0% 증가되었습니다.
- 거세우 사육두수는 810천두로 최근 3개월 평균대비 1.9% 증가되었고,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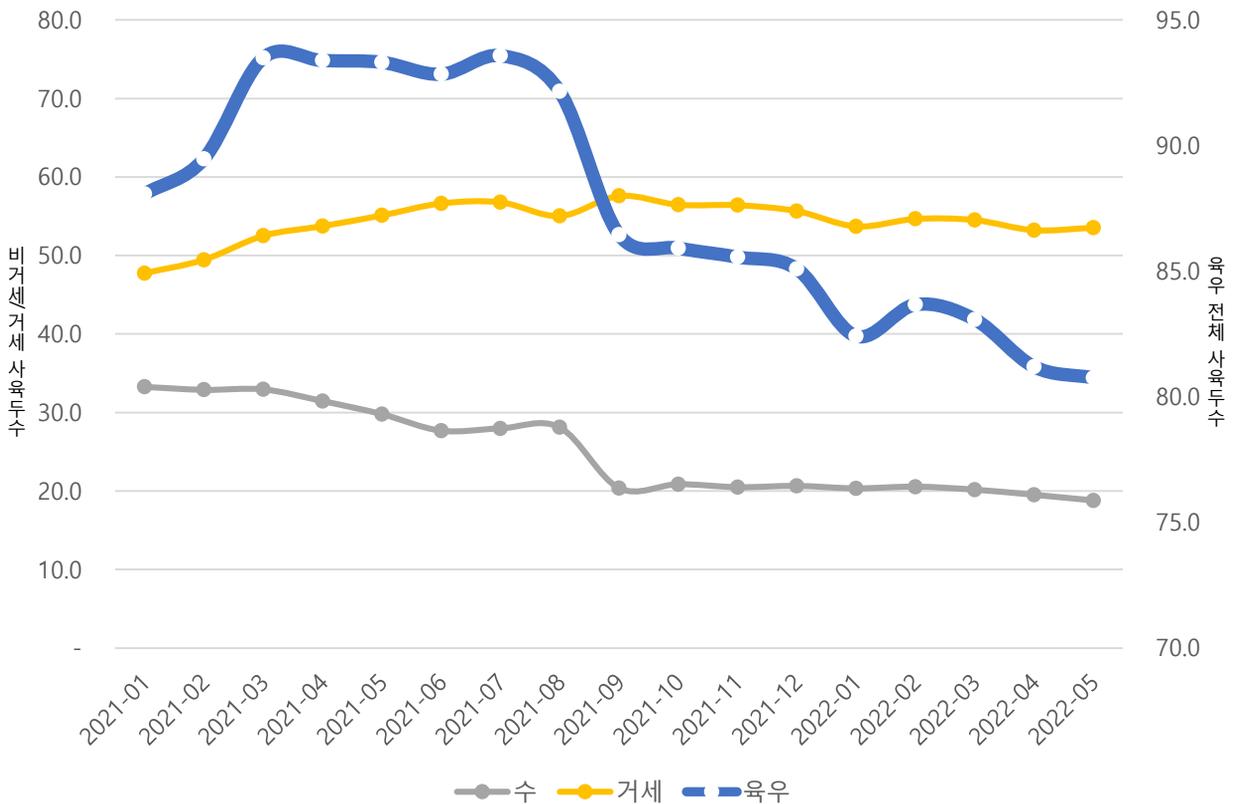
사육동향

2022년 5월 기준

육우 사육두수(숫소, 거세)

사육두수 8.1만 마리

(단위 : 천두)



(출처 : 한우핵심DB)

- 2022년 5월 육우사육두수는 80,754로 최근 3개월 평균 대비 2.3% 감소하였고, 최근 6개월 평균대비 3.3% 수 준 감소되었습니다.
- 비거세 사육두수는 18,786두로 최근 3개월 평균대비 6.4% 감소하였고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3.3% 감소되었습니다.
- 거세우 사육두수는 53,533두로 최근 3개월 평균대비 1.1% 감소되었고,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premium

축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대한민국 대표사료

프리미엄 어린송아지 사료

진심 시리즈

 **농협사료**



Sincerity

真心

本気

Ikhlas

ความจริงใจ

Chân thành

सच्चाई

நேர்மன

Kejuju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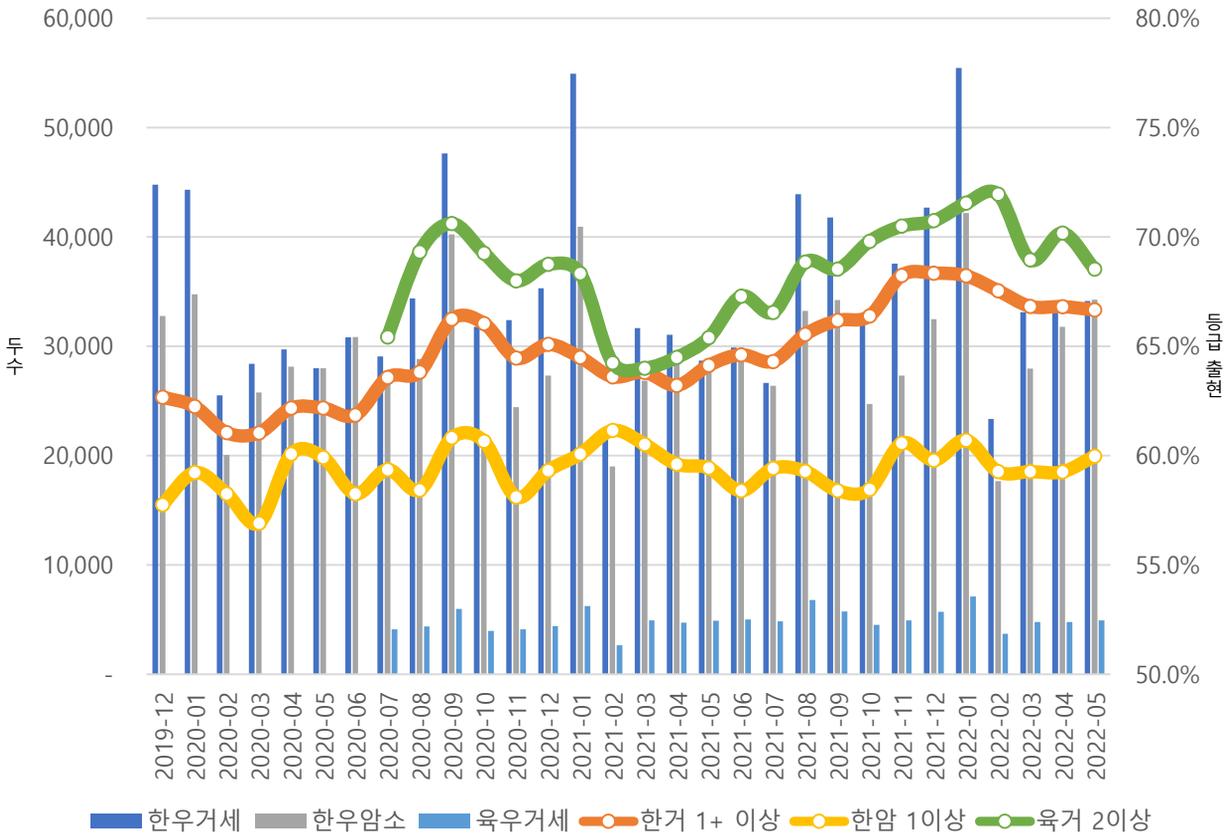
premium

출하동향

2022년 05월 기준

전월 대비 한우 거세 935두 증가
한우 암소 2,481출하 증가

(단위 : 두, %)



(출처 : 한우핵심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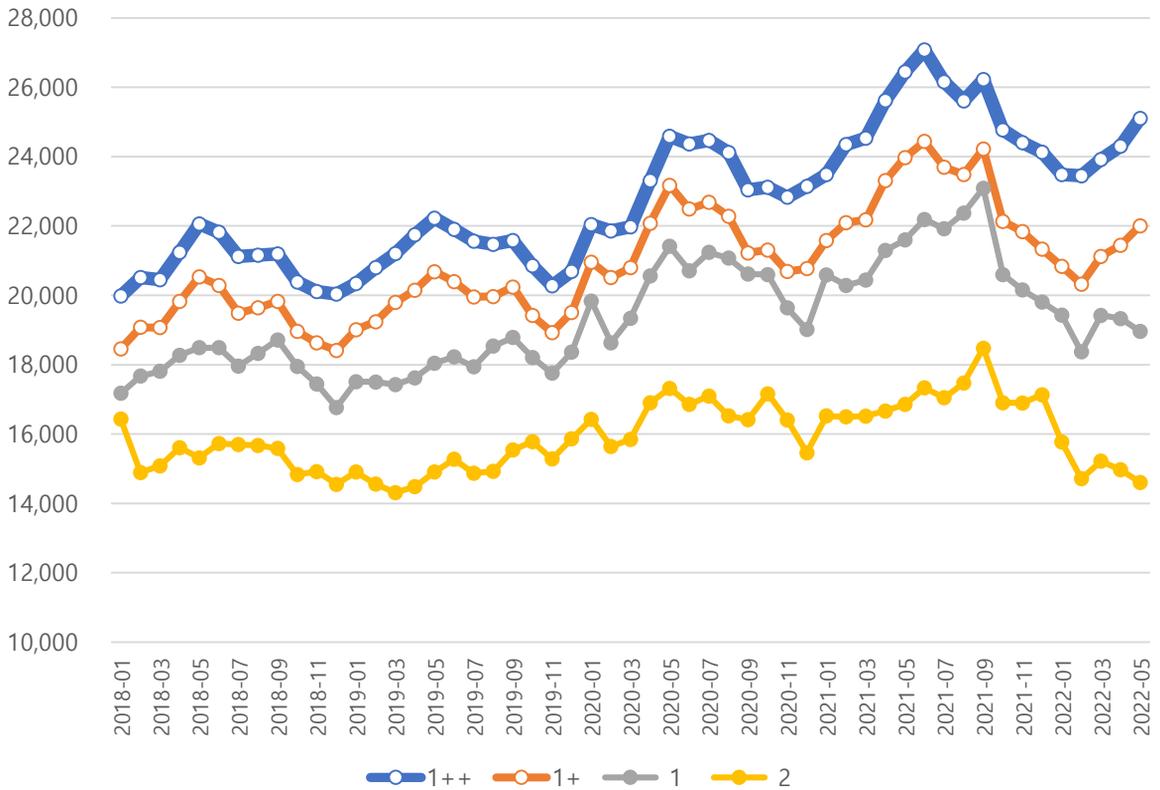
- 2022년 5월 국내산 한육우의 출하두수는 한우 거세 34,128두(전월 34,050), 한우 암소 34,245두(전월 31,764), 육우 거세 4,931두(전월 4,771) 입니다.
- 한우 암소의 최근 6개월 출하동향을 요약하면 평균 31,049두(/월) 수준으로 직전 6개월 29,229두(/월) 대비 출하가 증가된 상태 입니다..
- 육우 거세우에 2등급 이상은 68.5% 수준입니다.



시세동향

2022년 05월 기준

(단위 : 원/kg)



(출처 : 한우핵심DB)

- 한우 거세우의 1++등급의 2022년 05월간 단가는 25,101원(전월 24,298)으로 2021년 하반기 25,215원 대비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1등급의 단가는 전월대비 368원(/kg) 수준 인하된 단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3등급의 가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농협
안심
한우

발정 [강한]
육량 [많이]
출하 [빨리]

고급육

숙성비육
육성비육
마블-부스터
프리미엄카프
어린송아지

우량암소

포유탑
번식임신우
번식육성우
암소마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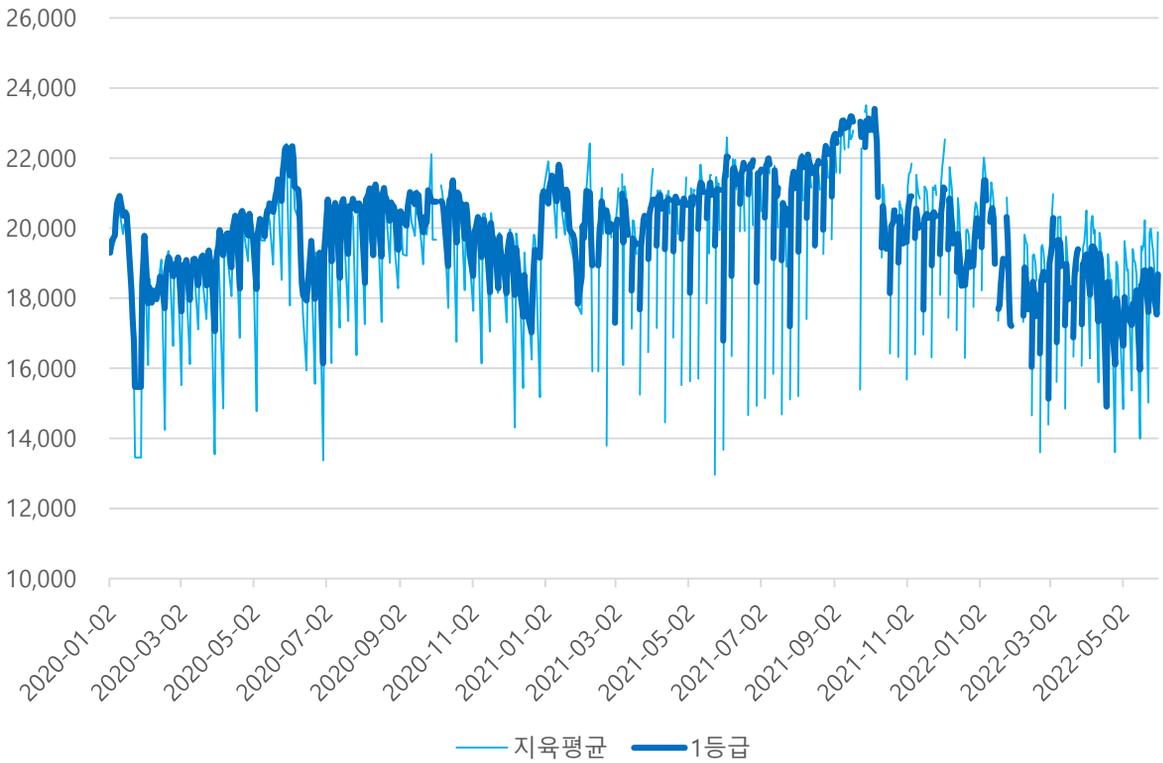
한우도매가격

2022년 5월 기준

한우 지육 / 1등급 평균 도매가격

2022년 5월 기준 한우평균
도매가격 18,497원(전월 18,457)/kg

(단위 : 원/kg)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5월 한우 전체 평균 지육단가는 18,497원/kg (전월 18,457), 1등급 평균 단가는 17,954원/kg (전월 18,154)이었습니다.
- 최근 3개월 평균가는18,616원 수준으로 직전 3개월(19,439원)대비 하락된 도매단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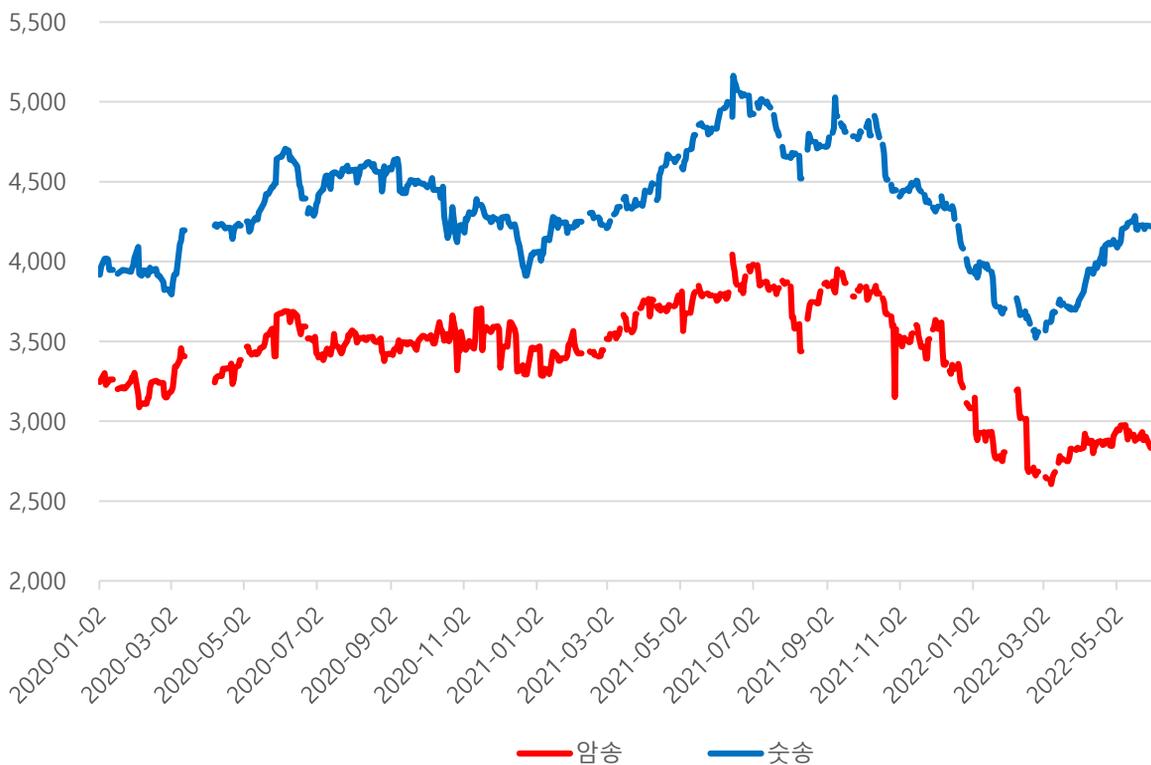


송아지 시세

2022년 5월 기준

한우송아지 일자별 경매가격

(단위 : 원/두)



(출처 : 한우핵심DB)

- 2022년 숫송아지 가격은 7월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3,784천원/두 → '22년 05월 평균 4,205천원
- 암송아지 가격은 평균 2,911천원(전월 2,861)두 수준입니다.



락토⁺

LACTO PLUS

건강한 젖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편안한 목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육성우

어린송아지
초임육성우
임신우
건유우

착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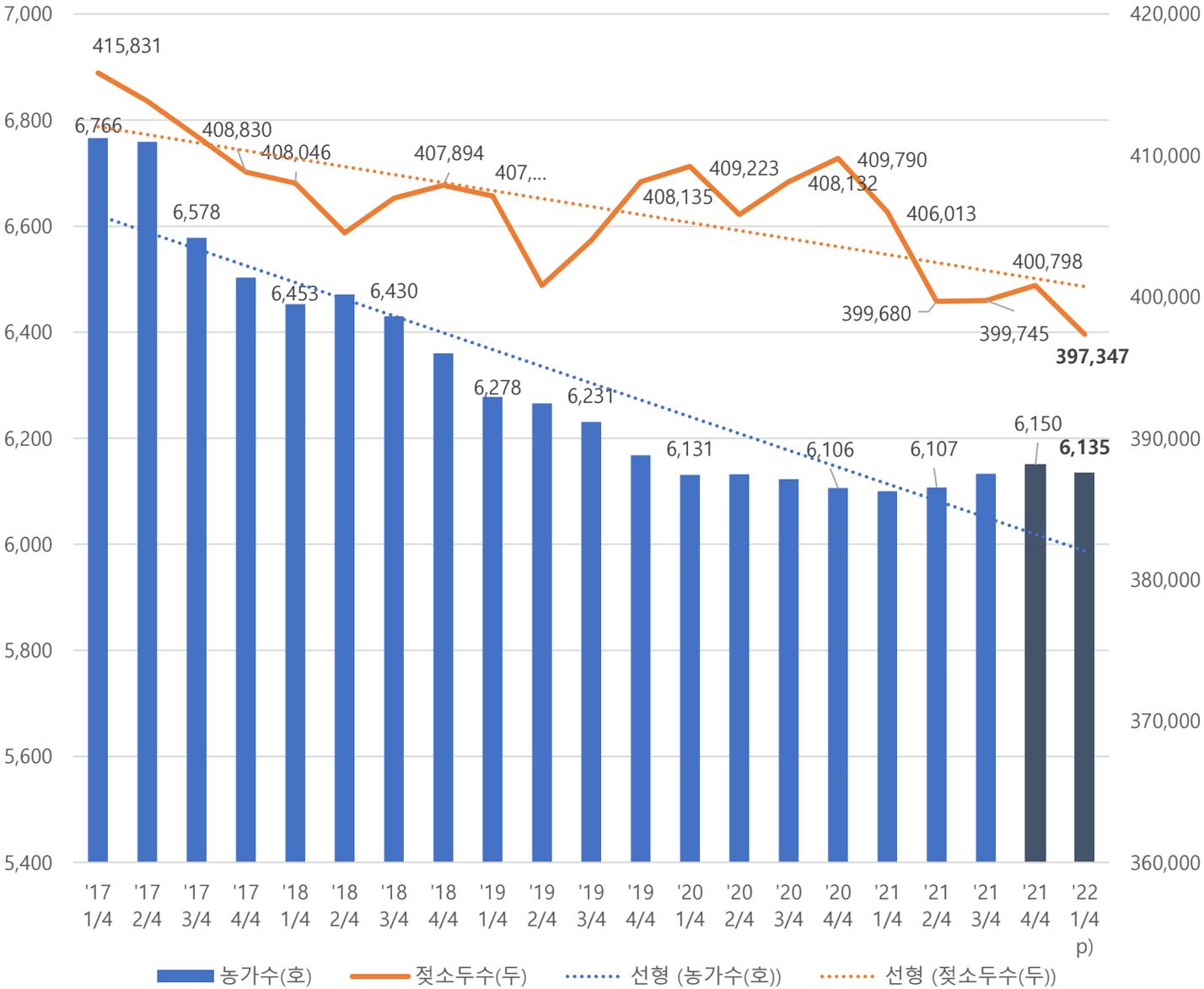
스타
30
40
50
탑드레싱
울인원
베이스믹스

40 | 크림블 | 25kg

농협사료

사육동향

20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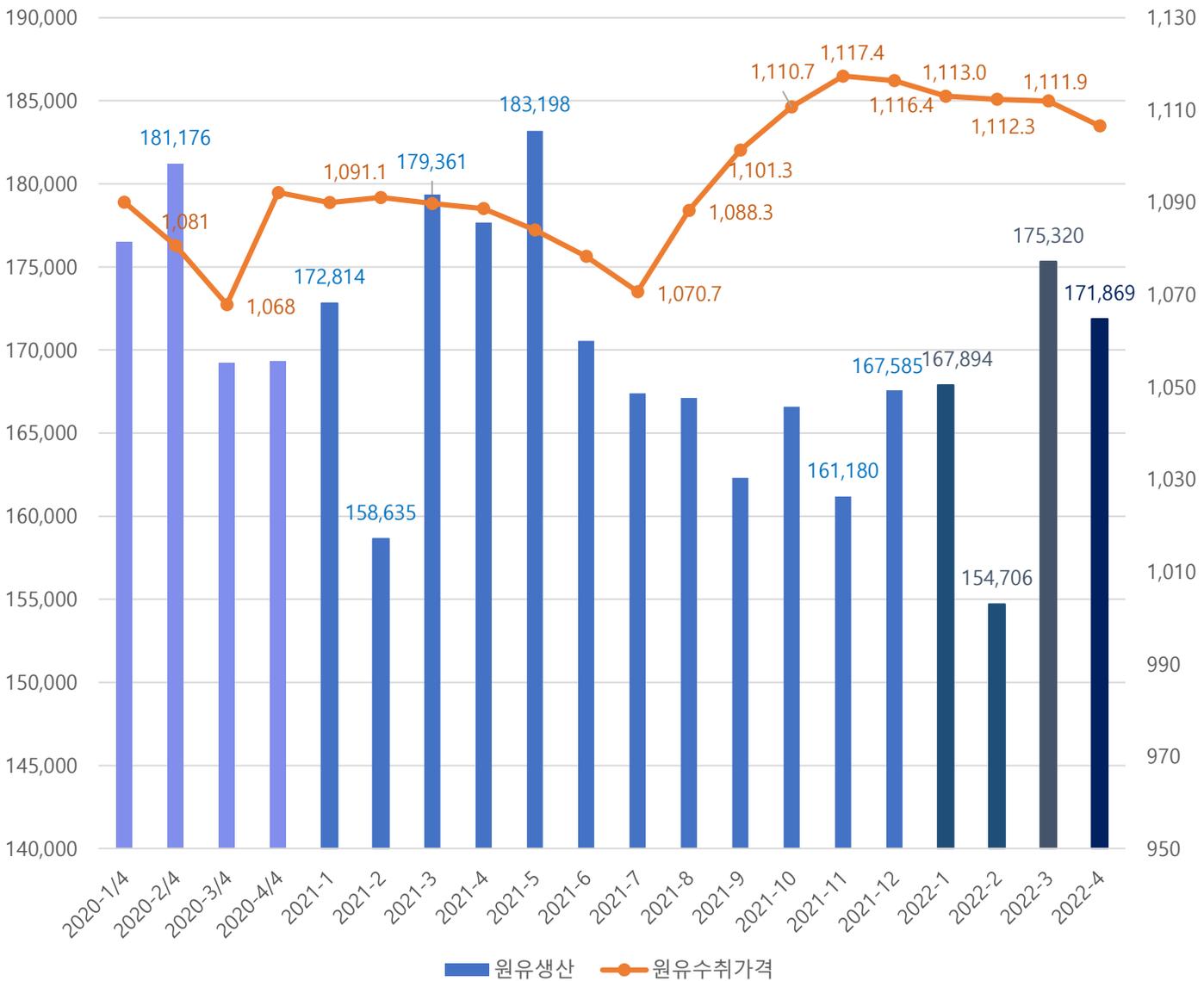
주: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동향조사」(2017. 1/4 ~ 2022. 1/4)

- 2022년 1/4분기 농가수는 6,135 호 p)로 4년전인 2017년 동분기 대비 약 318 호(-4.93%)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젓소사육마리수는 2022년 1/4분기 기준 약 397347 두 p)로 전월대비 약 3,451호(-0.86%)감소하고, 4년전 동월 대비하여 약 10,699 두(-2.62%) 감소하고 있습니다.
- * p) : 잠정치.



생산, 시세 동향

20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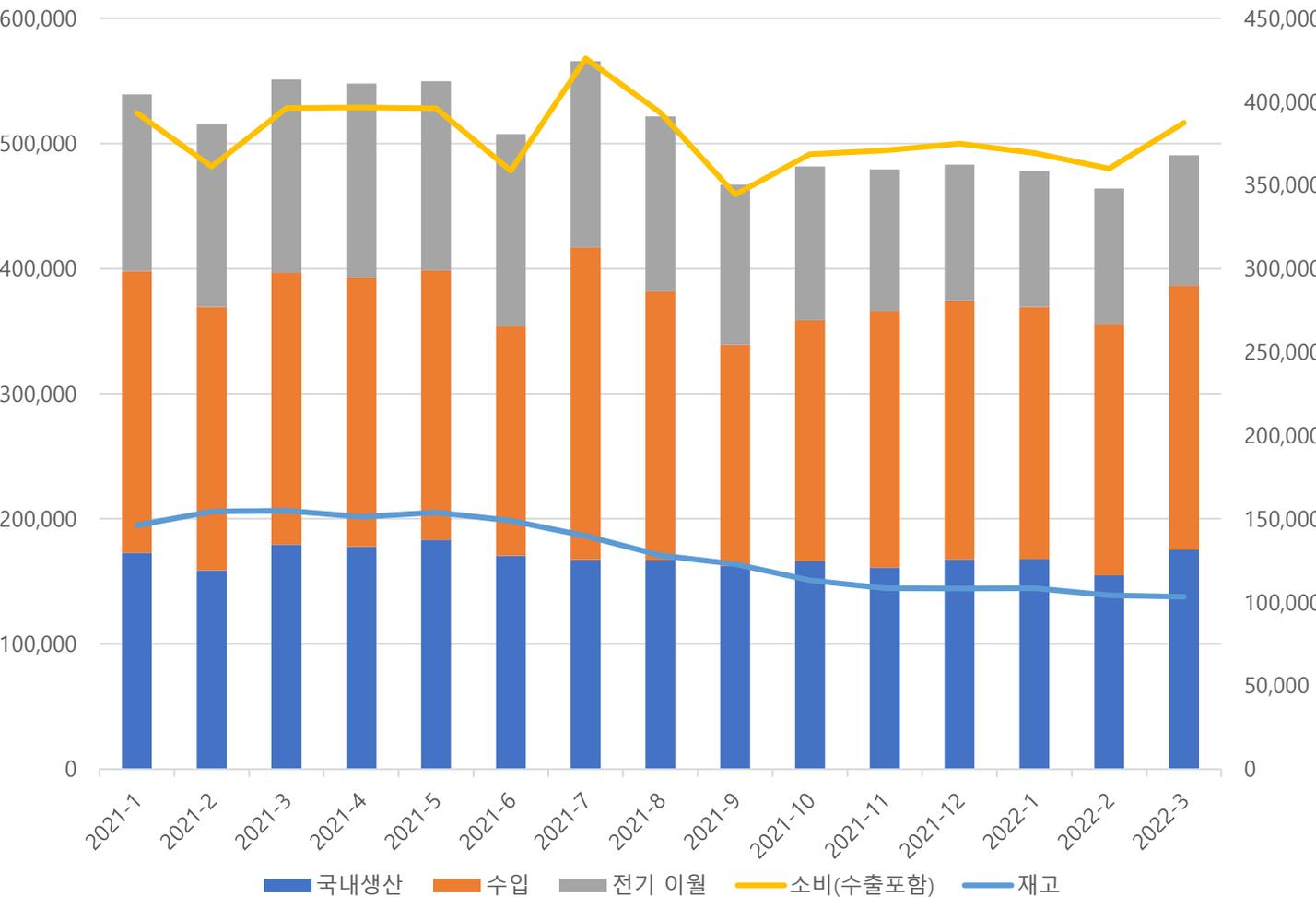
주 : 낙농진흥회 (2020. 1/4 ~ 2022. 4), 수취가격은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검사성적에 위한 정상단가

- 2022년 4월 원유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797 톤(-3.3%) 감소한 171,869 톤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원유농가 수취가격은 2021년 8월 리터당 21원 인상된 이후 2022년 4월 기준 1,106.5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원(1.6%)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2월 원유의 음용유 :가공용 사용비율은 72% : 28% 로 입니다.



우유수급 개황

20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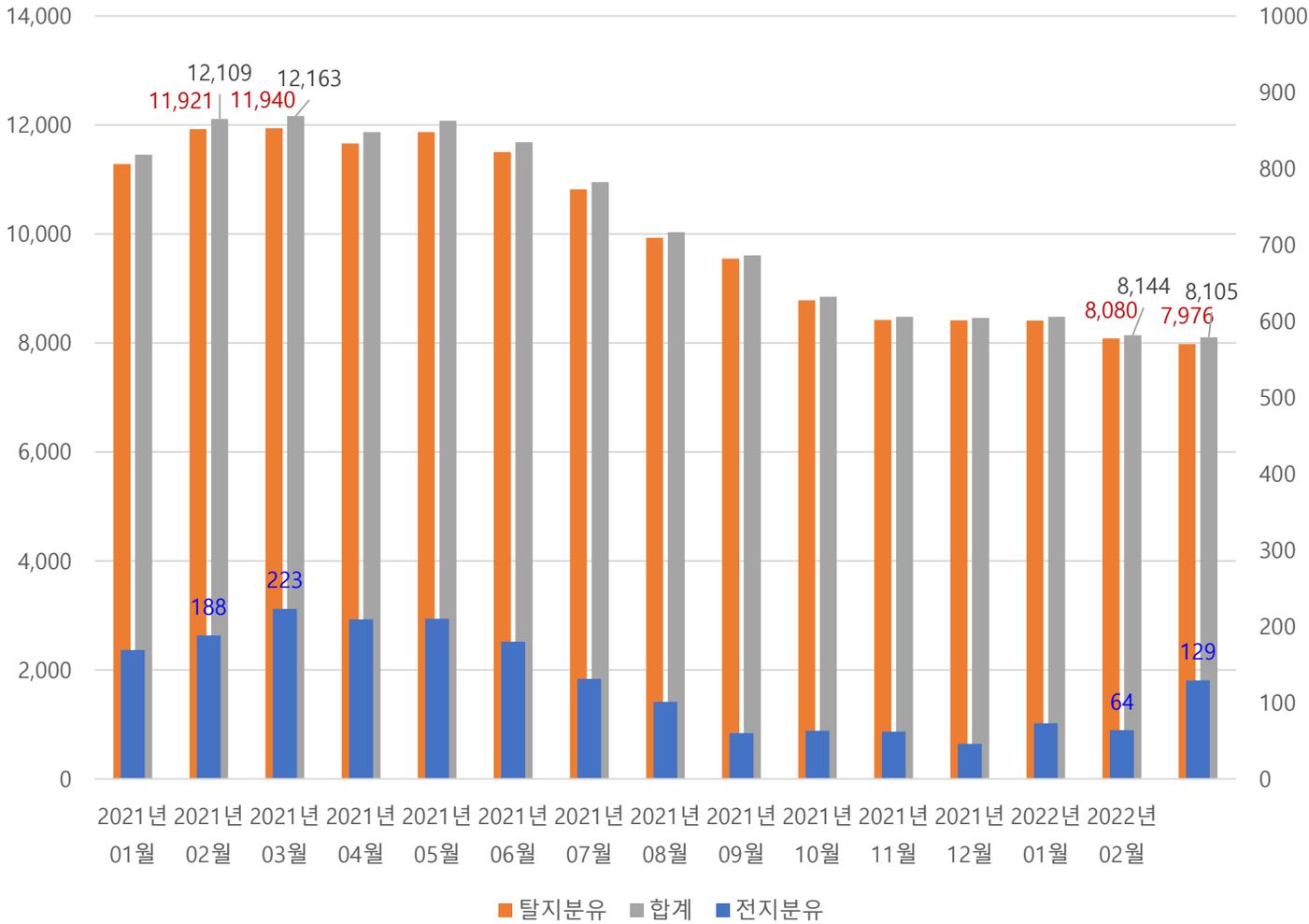
주 : 낙농진흥회 (2021. 1 ~ 2022. 2),

- 2022년 3월 국내 총 우유공급량은 490,706 톤(전원동월 대비 -10%)으로 원유생산과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75,318 톤(-2.3%), 211,269 톤(-2.8%)으로 감소하였고, 이월된 전기 재고량은 104,119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소비 물량은(수출 포함) 2022년 3월 기준 387,393 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감소하고, 전월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3월 재고량은 103,313 톤으로 2021년 3월 154,905 톤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유재고 현황

20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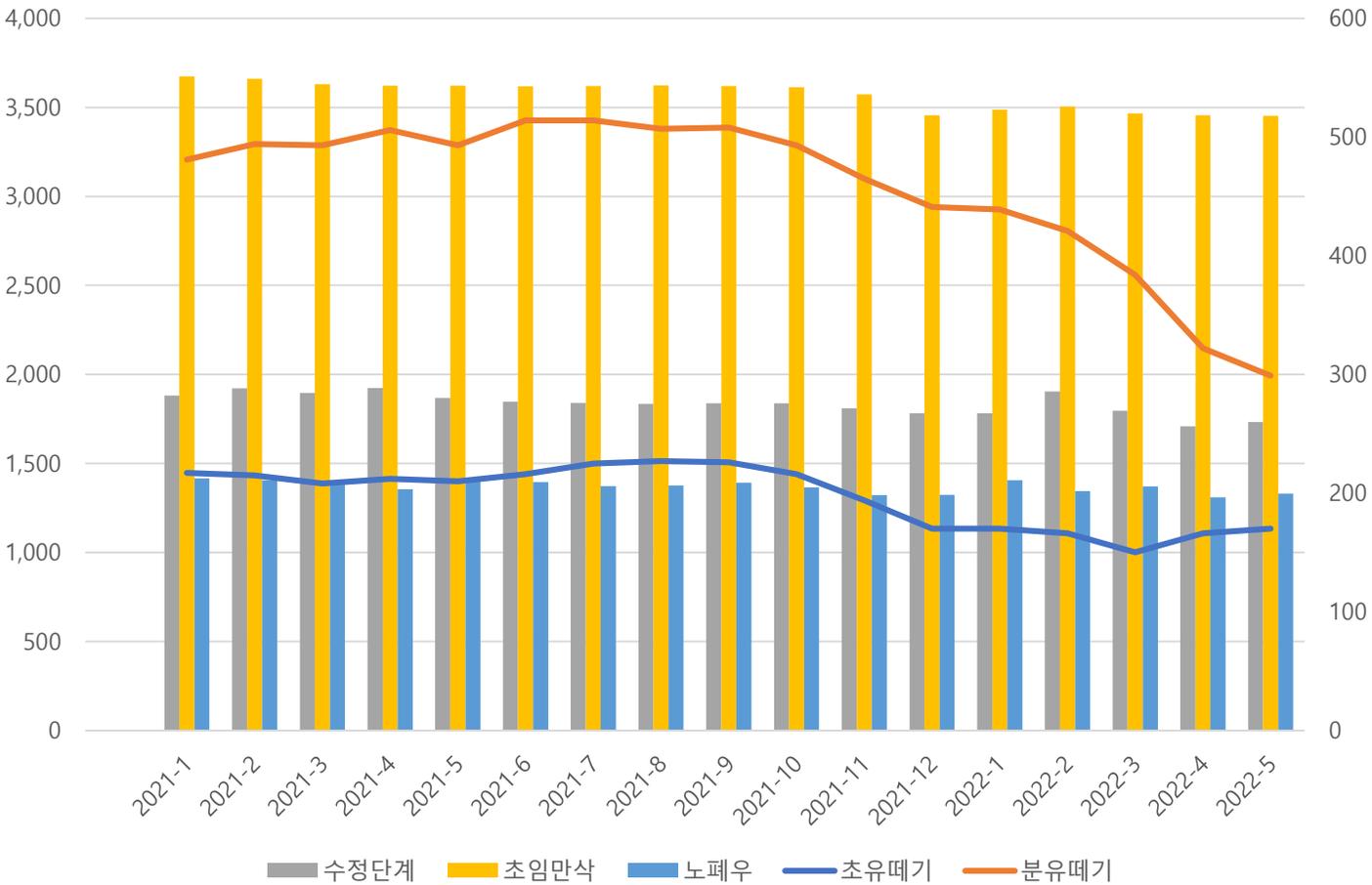
주 : 낙농진흥회 (2021. 1 ~ 2022. 2),

- 2022년 3월 국내 총 분유재고량은 8,105 톤(전년동월 대비 -33.4%, 전월대비 -0.5% 감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기준 탈지분유 재고량은 7,976 톤(전년동월 대비 -33.2, 전월대비 -1.3% 감소)이고, 전지분유 재고량은 129 톤(전년동월 대비 -42.2%, 전월대비 101.6% 증가) 집계되었습니다.



산지가격 동향

2022년 5월 기준



단위: 천원/두

구분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임만삭	노폐우
2022-3	150	384	1,796	3,466	1,370
2022-4	166	322	1,709	3,455	1,310
2022-5	170	299	1,733	3,453	1,330

주 : 농협 축산정보센터 - 월별 일별 가격동향 - 젖소산지가격동향

- 2022년 5월 젖소 암소 산지가격 동향을 보면...
- 초유떼기는 170천 원(전년동월 대비-19%)이고, 분유떼기는 299천 원(-39%)입니다..
- 수정단계 젖소는 1,733천 원(전년동월 대비 -7%) 이고, 초임만삭 젖소는 3,453천 원 (-5%)으로 거래되고 있다.



모든 축산정보를 한우올인원 하나로!

‘한우올인원’은 스마트폰과 PC에서 내 농장의 번식, 출하 등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에 알람이 “딱”
발정예정일에 알람이 “딱”
백신접종시기에 알람이 “딱”



설치 및 이용방법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아이폰)

▶ 프로그램은 어디서 찾나요?

스마트폰 어플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아이폰)에서
‘한우올인원’ 검색

웹 프로그램

www.hanwooaoio.com

▶ 이용방법은요?

- 유튜브 ‘한우올인원’ 채널에 사용방법 동영상이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한우올인원’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용문의는요?

- Tel. 02-6932-9700 (농협사료)



주요 원자재 시황 및 가격동향

- 외자구매부(6.14) -

- (옥수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수출차질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불안 우려,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견조한 수요세, 미국 내 고온 견조한 기상예보에 따른 작황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강세 지속

◀ 옥수수 선물 ▶

◀ 옥수수 구매가격 ▶



연 도	평균단가(\$/톤)
(현시세)	(400)
2022년	363
2021년	281
2020년	200

- (대두박)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수출제한에 따른 타이트한 식물유 공급여건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한 후, 미국 재배면적 확대 전망에 하락 전환. 최근 미국산 신규수출 소식에 기인한 수요 견조세에 재상승

◀ 대두박 선물 ▶

◀ 대두박 구매가격 ▶



연 도	평균단가(\$/톤)
(현시세)	(570)
2022년	539
2021년	469
2020년	358





- **(국제유가/해상운임)** 유럽의 러시아산(세계3위 산유국) 원유에 대한 단계적 수입금지 조치 및 중국 상하이 봉쇄해제에 따른 수요회복 전망,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상운임 강세 유지

◀ 국제유가(WTI) ▶

◀ BDI 지수 ▶



- **(환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위험회피 및 미국 긴축 전망, 중국 봉쇄 조치에 1,289원까지(5.12) 상승. 이후 중국 경기부양 기대 및 미국 물가 상승 정점기대 등에 1,230원대 하락 후, 美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재상승

◀ 달러/원 환율 ▶

◀ 환율 동향 ▶



연 도	평균 환율(원)
(6.13종가)	(1,284)
2022년	1,226
2021년	1,144
2020년	1,180



발정강한
육량많은
출하빨리

농협
안심
한우



고급육

숙성비육
육성비육
마블-부스터
프리미엄카프
어린송아지

우량암소

포유탑
번식임신우
번식육성우
암소마블



주요 뉴스

[Issue+] 한발 앞선 하절기 사양관리, 이것이 핵심

✎ 홍정만·안희경·김소연 기자 | ☎ 입력 2022.06.10 09:00 | ☐ 호수 4015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공급·바닥과 지붕에 물 뿌려 온도 낮춰야

올여름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 선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으면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는 축사관리, 사양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름철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폭염이 지속되면 사람 못지않게 가축도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 특히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온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화재나 정전이 발생하면 유해가스 농도 증가, 온도 등으로 가축이 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10년간 평년대비 평균기온이 6월 0.5도, 7월 0.6도, 8월 0.7도 상승해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6월은 1.3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기온 상승 경향이 나타났다.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유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더위에는 젖소가 음수량 증가와 사료 섭취량 감소를 겪고 이는 체내대사 불균형을 초래해 면역력 감소, 생산성 저하를 일으켜 농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젖소는 섭취한 사료가 반추위에서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해 고온 스트레스를 더 받아 적절한 사육 온도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젖소의 적정 사육 온도는 5~20도이며 고온 피해 시작 온도는 27도이다.

이와 함께 젖소는 우유 생산에 필요한 물 섭취가 중요하므로 하루에 150~2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땀과 호흡으로 인한 칼륨과 나트륨 등 광물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으며 여름철에는 되도록 사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분만 전후 젖소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줘야 한다. 아울러 반추위 동물인 젖소는 되새김질 시간이 길수록

우유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더울수록 반추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축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젖소는 하루 평균 450~550분 정도 반추하는데 더위지수가 1단계일 때 젖소의 하루 반추시간은 450분이었으나 5단계일 때는 380분 정도로 약 70분 짧아졌다. 이에 폭염이 발생했을 때 젖소의 반추시간을 적절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축사 환경과 사양관리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광석 농진청 축산과학원 낙농과장은 "반추시간을 모니터링해 사양과 우사 환경 관리를 한다면 고온기 우유 생산성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주요 뉴스

유업계, 협상거부...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 난항 예상

✎ 김소연 기자 | Ⓞ 입력 2022.06.07 18:16 | ☐ 호수 4015 | ▣ 1면 | ▢ 댓글 0

올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우유 생산비를 발표함에 따라 1개월 내에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요자인 유업체가 낙농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원유 기본가격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리터당 생산비는 843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이면 해당 연도에 원유 기본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업체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일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원유 기본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 협상 범위는 리터당 47~58원 오른 994~1005원이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해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참여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를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생산자 3명, 수요자 3명으로 총 7명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인 낙농가에서는 3명을 추천한 상태지만 수요자 측에서는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유 기본가격을 협상할 수 없다며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수요자 측인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원유 기본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낙농진흥회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자 측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 개편과 별개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도산한 낙농가들이 있을 정도로 낙농가들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유업체에서는 낙농제도 개편과 별개로 원유 기본가격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유업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음용유와 가공유를 구분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낙농가단체에서는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주요 뉴스

잇단 악재에 낙농가 “못 버티겠다” ...젖소 사육기반 무너질라

✎ 이현우 기자 | Ⓞ 승인 2022.06.10 19:25 | □ 신문 3400호(2022.06.14) 9면

올 하반기 젖소 사육마릿수 39만 마리 이하로 하락 전망 ('11년 구제역 이후 '최저') 사료가격 인상, 생산비 급등, 정부 일방적 제도개편 등 사육의향 감소(연쇄도산 우려)

올 하반기 젖소 사육마릿수가 39만 마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축산관측 6월호에서 올 6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4000~38만6000마리, 9월 사육마릿수는 38만3000~38만5000마리로 예측했다. 39만7000마리였던 지난 3월 보다 3.02~3.52%(9월 기준) 줄어든 수치다. 2008년 12월 이후 젖소 사육마릿수가 40만 마리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11년 전(구제역 파동)인 2011년 3월(39만6000마리)이 유일했다. 하지만 올 3월 젖소 사육마릿수는 39만7000마리로, 이미 11년 만에 40만 마리 선이 무너졌고 다가올 하반기에는 39만 마리 선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올 3분기 원유생산량은 49만6000톤이었던 1분기 보다 최대 2만4000톤 감소한 47만2000~47만7000톤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유 생산량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1세 미만 사육마릿수는 7만 7000마리로 전년대비 3.8% 감소, 송아지 생산마릿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4% 줄어든 1만9000마리에 그쳤다. 또한 농가들의 사육 의향도 하락하여 실제 분유떼기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6.4% 급락한 32만2000원(4월 기준), 초임만삭우도 4.6% 떨어진 평균 345만5000원에 거래됐다. 사육마릿수 감소에 대해 낙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료가격 상승으로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최소 1000원이 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의 여파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농가들의 사육의지가 떨어졌고 이 수치가 사육마릿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낙농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낙농가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낙농가는 “사료, 원료 외에도 톱밥 같은 부재료, 기름값까지 모든 비용이 인상됐다. 생산비가 오르니 송아지 거래도 안 된다. 농가들이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며 “리터당 생산비는 1000원이 넘는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 빚 상환도 어렵다. 농가들이 젖을 짜서 돈을 번다는 것보단 그냥 버티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변에 목장을 접고 싶어 하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쿼터 매매가 어렵고 소를 팔아도 얼마 받지 못해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1세 미만 송아지 숫자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우유 생산 여건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며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사육기반이 극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낙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낙농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업체들은 낙농가들의 우려와 달리 우유 수급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A유업체 관계자는 “작년엔 우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여파로 올해 부족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초부터 수급 관리를 해왔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의 예측량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급식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사육마릿수가 줄어들지만 소비도 같이 감소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주요 뉴스

대체 우유 시장 '쑥쑥' 미소 짓는 '매일유업'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07일 07시 57분 | 댓글 0

매일두유, 아몬드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 공략

'대체 우유'가 유업계를 주름잡던 '흰 우유'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 흰 우유는 출산율 저하, 1인당 우유 소비량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흰우유 1인당 소비량은 2018년 27kg에서 2020년 26.3kg으로 줄었다. 지난해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 오른 영향도 컸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주요 업체의 제품가가 줄줄이 오르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외면이 가속화됐다. 반면 대체 우유 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건강을 중요시 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75%가 유당불내증(유당을 분해,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유하고 있어 흰 우유 대체품에 대한 높은 니즈 역시 대체 우유 소비를 견인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체 우유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육류와 유제품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도 대체 우유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은 올해 16% 성장하며 19조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유업계는 대체 우유 발굴에 열을 올리면서 두유 뿐만 아니라 아몬드, 귀리 등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은 '매일유업'이다. 매일유업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대체 우유 시장에 진입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매일유업은 총 14종으로 다양한 대체 우유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매일두유, 캘리포니아 프리미엄 아몬드로 만든 아몬드 음료 '아몬드 브리즈', 핀란드산 통 귀리로 만든 귀리음료 '어메이징 오트' 등이 대표적이다. 매일두유는 지난 6년간 6억6000만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매일두유 99.9와 매일두유 검은콩은 원료 및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실험방법 모두 비건인증을 획득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식물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각 브랜드별 고객 수요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체 우유 제품군을 성장시킬 예정"이라며 "매일유업의 독자적인 대체 우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건 인구가 늘고 있고 다이어트나 다양한 식재료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대체 우유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주요 뉴스

농식품부,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자' 9개소 선정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6.09 18:04

강원 태백 몽토랑농장 등 축산물 홍보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자' 최종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탄소흡수원인 초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하고 방목을 통해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장에 초지조성 비용과 방목 사육 축산물 홍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서류·현장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강원 태백의 몽토랑농장을 포함해 5개 시도 9개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농장 중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몽토랑산양목장'은 유가공 체험시설을 통해 아이스크림·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매월 약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목장으로, 이번 초지 조성 사업을 통해 넓은 초지에서 방목 사육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돼 관광 수익도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 '수망리공동목장'은 130ha 가량의 넓은 마을 공동 초지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공동목장으로, 초지 조성 및 경영 자문 등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유기 인증, 방목 사육 축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기농방목마켓'(orgagrazing.co.kr)에 신규 지정농장의 축산물이 입점·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농방목마켓'은 지난해 개설 후 현재까지 11개 품목을 입점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전월 대비 75% 성장)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인 유기농·방목 축산물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전북 정읍 다음목장(2018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의 목초 사료로만 키운 한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에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이기 때문에,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농장은 오는 17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2022년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니,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결정체인 방목생태축산에 농가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출처 :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





주요 뉴스

식량전쟁...위성까지 동원해 재배면적 조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2.06.06 18:05:37 수정 : 2022.06.06 20:42:56

논밭 현장 방문조사로는 정확한 면적 측정 어려워 인공지능으로 경작물 파악, 가격·수급 불안 신속 대응

국제 곡물값 급등 여파에 식량안보 위기감과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위성 관측 기술을 동원해 작물 재배면적을 측정한다.

일일이 논밭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위성으로 재배면적을 측정해 작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식량안보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포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물 재배면적 측정 개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통계청은 벼, 마늘, 양파, 보리, 사과 등 120종 작물에 대해 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 79만곳 논밭 가운데 표본농지 2만2000 곳을 선정한 후 전국 조사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현장 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재배면적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리랑 위성 등 다목적 실용위성을 활용해 재배면적 측정 방식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올해 벼 재배면적 측정에 위성 관측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후 양파 등 다른 작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곡물 자급률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로 사상 처음 20% 선이 붕괴됐다.

자급률 관련 국제 통계가 작성된 2000년만 해도 한국 자급률은 30.9%였지만 20년 새 11.6%포인트가 추락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작물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대책을 짜는 데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곡물 수출국인 미국(120.1%), 캐나다(192.0%)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27.3%)에 비해서도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일본은 20년 전만 해도 자급률이 26.6%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꾸준히 20%대 중후반 수준을 지킨 반면, 한국은 자급률이 빠르게 무너지며 식량안보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곡물 수급 안정 사업·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식량 작물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생산과 유통 기반, 기계화율이 미흡해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주요 뉴스

뉴질랜드, 소·양 트림서 발생 메탄가스에 비용 부과

송고시간 | 2022-06-08 16:52

환경부 "가축 배출 온실가스에 비용 매기는 첫 국가"

농축산물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비용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 대표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축산 농가는 2025년부터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안은 사료첨가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의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이 중 메탄이 가장 많다.

뉴질랜드의 인구수는 500만명인데 비해 양의 사육 두수는 2천600만마리, 소는 1천만마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Co₂환산t으로, 이는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특히 되새김질을 하는 소나 양은 사육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나 가축 사육 등 농업 부문 온실가스는 그동안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 정부의 지구온난화 예방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으로 뉴질랜드가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물리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농경제 이코노미스트 수전 킬스비는 이번 법안이 1980년대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na.co.kr>)





주요 뉴스

우크라發 곡물값 급등에 라니냐까지..."내년 더 큰 식량위기 온다"

허세민 기자 · 이고운 기자 | 입력 2022.06.12 17:34 | 수정 2022.06.13 01:11 | 지면 A4

전쟁에 공급망 붕괴 / 러, 수출길 흑해 항구 막아 / "2200만t 곡물, 다 썩어간다"
20國 농산물 수출 금지, 식량보호주의, 인플레 부추겨 / 길어지는 라니냐 '세계 신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발표한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상 기후로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7월물 밀 가격은 42%가량 급등했다. 옥수수와 콩 가격(7월물)은 각각 31%, 27% 상승했다.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떠났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남은 농부들도 쏟아지는 폭격 탓에 지난 봄 밀과 같은 주요 작물의 파종 시기를 놓쳤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우크라이나 농경지 중 20~30%가 파종되지 않거나 수확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도 뚝 끊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된 수출로인 흑해 항구를 장악하면서다. 수출되지 못한 채 창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현재 2200만t에 달한다. 이 곡물이 이른 시일 내 수출돼야 새로 수확하는 농산물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는 8월까지 해상 수출길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이 (수확되지 못해) 밭에서 썩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이 쏟아지자 일부 우크라이나 항구의 운영을 재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항구 일대의 지뢰를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단서를 달았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5월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등 각국은 농산물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소 20개국이 식량 수출에 제한을 뒀다"며 "식량보호주의가 식량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계속 -



주요 뉴스

우크라궤 곡물값 급등에 라니냐까지..."내년 더 큰 식량위기 온다"

허세민 기자 · 이고운 기자 입력 2022.06.12 17:34 | 수정 2022.06.13 01:11 | 지면 A4

"라니냐 충격에 작황까지 부진"

라니냐는 글로벌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악재다. 라니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며 발생한다. 이로 인한 대류 변화로 동태평양 쪽에 있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농경지엔 가뭄이 찾아온다. 서태평양 인근에 있는 인도 등은 폭염 피해를 입는다.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리플 딥은 1950년 이후 두 차례밖에 없었다. FAO는 "라니냐가 북반구에서 가을까지 지속되고 겨울에 또다시 발생한다면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메가드라우트(megadrought·초장기 가뭄)'가 나타나고 있다.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는 "12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어들 것이라고 미 농무부(USDA)가 내다봤다. USDA는 올해 세계 밀 생산량도 전년 대비 446만t(0.57%) 줄어든 7억7480만t에 그쳐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최대 산지 캔자스주의 가뭄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경질붉은겨울밀의 올해 수확량은 21% 줄어들 전망이다. 인도도 121년 만의 폭염 탓에 올해 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매년 밀 3500만t을 수확해 이 중 절반을 수출해 왔다. 세계 1위 콩 수출국인 브라질에선 이미 수확량 감소가 현실이 됐다. 지난달 셋째주까지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45억5000만부셸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가뭄은 육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남미 등지의 축산 농가들은 식육용 가축의 조기 도살을 고려하고 있다. 가뭄으로 목초지의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다. 목초지의 풀을 대체할 사료 역시 가뭄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축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대한민국 대표사로

프리미엄 어린송아지 사료 '진심 시리즈'



진심 초유 | 500 g



진심 대용유 | 10 kg



진심 링크 | 15 kg



진심 어린송아지 | 20 kg

농협사료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송아지 신제품 "진심" 시리즈는
식이성 설사를 최소화 하여, 신생 송아지의 성장부진을 예방하는 고품질 사료입니다.

농협안심한우

최고의 출하성적에 도전합니다
최고의 번식성적에 도전합니다



육성비육 후레이크 25kg
농협사료

고급육

숙성비육
육성비육
마블-부스터
프리미엄카프
어린송아지

우량암소

도유합
번식임신우
번식육성우
암소마블

농협안심한우
시리즈

고급육



링크

F



어린송아지

F



육성비육

H P F



숙성비육

H P F



암소마블

H P F



마블-부스터

F

송아지 설사 제로
건강한 반추위 형성

급여구간 단순화 및 에너지/단백질 강화
출하월령 단축 및 등심단면적 개선
도체중 및 마블링 증가

우량암소



링크

F



어린송아지

F



번식육성우

H P



번식임신우

H P



포유탑

H P

송아지 설사 제로
건강한 반추위 형성

비타민/미네랄, 지방산 보강
강한 발정 및 건강한 송아지 생산
영양소 이용성 및 사육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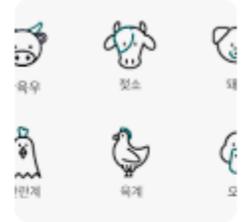
주요 뉴스

 농민신문

한우고기, 9월까지 하락 전망...돼지고기 강세 지속

올해 3분기(7~9월) 한우고기값이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6월 축산관측'을 통해 "현재 한우 공급..."

3일 전



 조선비즈

한우·아이스크림 반값에 팔아요... 유통업계, 물가잡기 총력 - 조선비즈

유통업계, 물가잡기 총력. 고기 소비 촉진 위한 육육(肉肉) 데이 앞두고 반값 한우 행사 가족 나들이 위한 캠핑·빙과류 먹거리도 할인.

1주 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고물가에도 한우값만 하락한 까닭은?

한우 가격만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기형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르고, 오르고, 오르는 고물가 행진이 끝을 모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일 전



 한국농어민신문

한우 소비홍보 정부 지원 없었다 < 중요기사4 < 한우 < 축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농식품부의 뒤늦은 축산 자조금 승인과 소비 홍보사업 매칭 중단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방송 제작·한우먹는 날 등

2주 전





주요 뉴스

M 매일경제

"맛있는 한우 DNA부터 달라...산지에서 음식점 직접 연결"

'버터크림라떼'로 알려진 하프커피는 직영 매장만 전국에 10개에 달한다. 여덟끼니는 서울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농장에서 양질의 한우 종자에...

6일 전



한국농어민신문

한우 가격 내리막인데 수송아지 가격은 상승세, 왜?

한우 도매가격은 꾸준히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아지 가격 상승세는 이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축시장 경매가격에 따르면 4월 4일 기준 한우...

3주 전



한라일보

제주에서 슈퍼한우 3마리 동시에 나왔다

17일 서귀포시축협에 따르면 제주한우사랑농장 강태백 대표가 40개월동안 사육 후 출하해 10일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3마리의 생체 무게가 각각 1086kg, 965kg,...

4주 전



축산신문

"맛도 영양도 으뜸인 우리 한우"

한우자조금, 한우고기 영양학적 가치 소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우리 한우가 맛은 물론 영양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1주 전





주요 뉴스

농협사료 소식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사료 선정 대표농가 '영광의 얼굴'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
- f
- 🐦
- 📺
-
- 📄
- ✉



정상태 농협사료 대표이사(왼쪽 첫번째)가 2022 대한민국 대표농가로 선정된 5곳의 농가 부부들에게 인증패와 꽃다발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사료, 6개 농가 인증식
인증패·선진지 견학권 수여
"어려운 여건 속 우리 축산 선도"**

금홍한우(금산)와 성우농장(예천), 송촌한우농장(해남·이상 한우) 그리고 대광목장(횡성·낙농), 녹색농원(영광·양돈), 귀평축산(곡성·산란계)이 농협사료의 2022년 대한민국 대표농가로 선정됐다.

이에 농협사료는 지난 17일 대전 소재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정상태 농협사료 대표이사, 이정우 리더스클럽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대한민국 대표농가 인증식을 개최하고 해당 농가들에게 인증패와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권 등을 수여했다.

이날 대표농가로 선정된 농가들은 우수한 농장 성과와 지역 내 명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홍한우의 임진표 대표**는 2008년 4월 암소 21마리로 한우 사육을 시작해 사육환경 개선과 선진 축산기법 도입, 후계축산인 양성 등 노력으로 2014년 한우개량사업소 육종농가 선정, 2019년 우량 육성우 및 임신우 경매대회에서 최고가 낙찰, 한국종축개량협회 총남지회장 선출 등 농협사료 이용농가로서 위상을 높였다.



편안한 반추위를 위한 복합완충제

Bio-Buffer Plus⁺



[농협사료 바이오버퍼플러스]란?

반추위 내 PH조절을 통하여 반추위 내 미생물 조성 및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완충제입니다.

바이오버퍼플러스 등록성분

나 트 륨 9.0% 이상
마 그 네 슴 10.0% 이상

바이오버퍼플러스 사용원료

중 조 40%
산화마그네슘 20%
규 산 염 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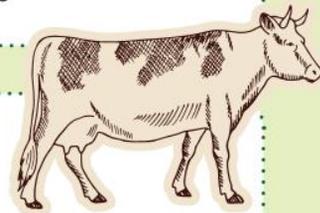
권장사용량 및 포장단위

착유우 · 비육우 1일 두당 100g 급여
번식우 1일 두당 80g 급여
포장단위 지대 25kg

Bio-Buffer Plus⁺ 면역력 강화 복합완충제

주요효능

- 반추위 내 pH 균형 유지에 도움
- 반추위 내 환경 개선에 도움
- 대사성 질병 예방에 도움
- 사료섭취량 개선 및 에너지 이용성 증가에 도움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전문공장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Tel.051-606-1900 <http://mall.nonghyupsaryo.co.kr>

대가축 기술정보지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본 2022년 6월호에는 한우 및 낙농 시황관련 뉴스 스크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곡물 수급동향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에 보강 & 추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animality@nav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가축 기술정보지의 내용이 농장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우리 앞에 다가온 큰 도전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전진으로 함께 뛰어 봅시다~!!

2022년 7월 15일에 뵙겠습니다.



마케팅본부
R&D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